



## 겨울 한라산 등반

순천향대 의대 내과학 명예교수  
히트 스캔 삼성내과 권영주 원장

우리나라의 산하는 모든 계절이 아름답다. 눈 속에 쌓인 겨울 풍경은 폐미쁜 겨울을 한결 아름답게 변화시킨다. 하얀 눈의 손길이 없다면 겨울철은 얼마나 삭막할까? 눈이 쌓인 산속을 걸어 보셨습니까? 한라산의 겨울 풍경은 눈이 시원도록 아름다운 감동의 물결을 가져다 줍니다. 눈 속의 겨울 등반은 별천지 세계로 이끌어

모든 잡념을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 자신과 눈길 속에 모든 것을 쏟아 넣습니다. 펑펑 쏟아 붓는 눈보라 속에 잔뜩 쌓인 눈은 세상천지를 하얗게 물들이고 오늘은 고요함 속에 맑은 하늘과 함께 합니다. 나뭇가지에 편 눈꽃과 상고대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궁전의 그 어떤 장식보다 더 정교하고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들입니다.





완벽한 자연의 진리 속에서 태어난 위대한 자연의 조화이며 그 아름다운 자태와 깊이는 측정 할 수 없는 무한대의 영역에 속합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다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제 찬란한 햇빛이 눈꽃과 상고대를 녹이면서 바람은 눈꽃을 날려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사진가들은 아름답고 웅장한 눈 속의 풍경을 필름 속에 오랫동안 보존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한라산의 눈 속 등반은 확 트인 넓디넓은 구릉사이를 지나기도 하고 울창한 꽃 터널을 지나기도 합니다. 비교적 완만한 경사 속에 오르는 한라산이지만 때론 급경사를 오를 때도 있습니다. 힘든 눈 속 등반 속에서도 풍경사진을 촬영하는 동안은 휴식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아름다운 촬영시야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등반인들과는

달리 그 전진속도가 느립니다. 노루목에서 출발하는 한라산 등반코스는 비록 백록담을 볼 수는 없지만 하얀 산 속에서 백록담을 품고 우뚝 솟은 한라산 정상은 더욱 겹게 보입니다. 성판악에서 출발하는 한라산 등반은 분화구까지 볼 수 있으나 한라산 정상의 날씨는 대부분 운무와 눈 바람으로 가득 차 한겨울 속에서 백록담을 보기란 좀처럼 어렵습니다. 세찬 눈바람이 부는 한라산 정상의 분화구는 앞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자연의 진리 한 가운데 서서 승화된 영혼의 인식처와 대자연의 위대함과 예술의 극치를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풍경사진 속에서 그 아름다움의 일면을 남겨 보존하고 함께 그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MP저널